

나이를 먹는다는 것

올해가 회갑이다. 나 자신도 믿겨지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잠이 일찍 깨어 아침 시간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 일어나면 습관처럼 문 밖에서 신문을 가져온다. 하루는 신문을 뒤적거리는데 ‘나이가 드는 즐거움’이라는 소설가 김연수의 글이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젊음과 마찬가지로 늙음도 공짜처럼 주어진다. 그래서 원치 않는데 손에 주어지는 전단지처럼 젊음이나 늙음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면서, 현명하게 젊기는 어려우나 현명하게 늙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나는 가끔 지인들과 만나면 유머러스하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 물어본다. 대답은 다양하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고, 소식하는 것이 제일이라고도 한다. 내 대답은 ‘나이를 먹어야 오래 산다’이다.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하면서 나이를 먹는 것은 싫어한다. 나이 먹는 것을 차의 속도에 비례하기도 한다. 강준만 교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라는 책에서, ‘왜 나이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가?’를 ‘시간압축효과’로 설명하고 있다.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억할만한 것도 사라지고, 시간이라는 열차는 기억이라는 정거장을 경유하지 않은 채 마구 내달려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조정래의 <아리랑>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은 대목이 있다. 일제 강점기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늙어가는 것의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에 한 사람이 자기는 억울하지 않다고 하며 “우리 늙어가는 세월 자식들이 받아 먹고 컸다”고 말한다. 나이를 먹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삶이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트로트를 좋아한다. 그래서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가요무대’이다. 저녁에 헬스클럽에 가면 걷기 운동을 하면서, 가끔 이 프로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거의 다 안다. 그날도 그랬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아내와 운동을 함께 다니는데 탈의실에서 어떤 여학생이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어떤 노인네가 눈치도 없이 뽕짝을 크게 따라 불려, 옆에서 걷기를 하다가 기분이 상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다가 그게 ‘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것이다. ‘그래! 나 노인네다’. 헬스장에서 항상 흘러나오는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불렀더라도 기분이 상했을까? 요즘 유행하는 현아의 ‘빨개요’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현아, 현아는 Yeah”를 따라 부르는 나를 상상해 본다.

요즘 중년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의 하나가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라고 한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라는 가사를 목청을 높여서 부른다. 왜 나훈아는 컴백을 하지 않을까? 가끔 명절 특선 프로그램에 나오면 정말 좋았는데... 최근에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는 듣기가 좋아 가끔은 흥얼거린다. 이것은 내 개인의 편향이 아니라 순전히 전문가(?) 수준에서 하는 평이다. 세월의 흐름을 속절없다고 하는가 하면, 숫자에 불과한 나이 앞에서 당당함을 보이기도 한다. 나이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면 바쁘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 나이에도 무엇을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핀잔을 한다. 글썽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연구도 해야 하고 논문도 써야 하고 책도 써야 하고, 나는 80세에 아직도 계속해서 책을 쓰시는 은사님이신 김재영 교수님을 존경한다. 가끔 만나 뵈울 때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라고 하신다. 그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생님이 평생 하시는 일을 말릴 수가 있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어진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삶. 건강도 챙겨가며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삶. 이것이 현명하게 나이를 먹어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 저녁에도 헬스장에 가야지!



김창희 위원
전북중재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